

'설 극장가' 힘 못쓴 한국 영화

한 영 애

9~11일 박스오피스

미 '윙카' 영상·음악 호평 1위
'시민덕희' 35만명 동원 2위
지난해 연휴보다 관객 감소
뚜렷한 대작 없는 것도 영향

극장가 대목인 이번 설 연휴 가장 많은 관객을 끌어들이는 영화는 티모테 살라메 주연의 할리우드 판타지 '윙카'였다.

12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윙카'는 설 연휴 첫날인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52만2000여명(매출액 점유율 32.8%)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윙카'는 개봉일인 지난달 31일부터 줄곧 1위를 달려왔다. 할리우드 톱스타 살라메가 주연한 데다 영상과 음악이 뛰어나 호평받고 있다. 누적 관객 수는 158만5000여명이다.

라미란·염혜란 주연의 '시민덕희'는 설 연휴 사흘간 35만3000여명(21.9%)의 관객을 모아 2위였다. 지난달 24일 개봉한 이 영화는 설 연휴 대목을 노리고 개봉한 신작들의 공세에도 밀리지 않았다.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7일 줄줄이 개봉한 '도그데이즈', '데드맨', '소풍' 등 한국 영화 세 편과 할리우드 영화 '아가일'의 성적은 기대에 못 미쳤다.

김택민 감독의 '도그데이즈'는 설 연휴 사흘간 15만2000여명(9.6%)을 모아 3위에 오르는 데 그쳤다. 하준원 감독의 '데드맨' (11만7000여명·7.3%)과 김용균 감독의 '소풍' (9만8000여명·5.9%)은 각각 5위와 6위에 머물렀다.

국내에서도 흥행한 '킹스맨' 시리즈의 매슈 본 감독이 연출해 기대를 모았던 첩보 액션 블록버스터 '아가일'은 같은 기간 6만1000여명(4.1%)을 모으는 데 그쳐 7위였다.

눈에 띄는 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를 조명한 김덕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의 선전이다.

지난 1일 개봉한 이 영화는 설 연휴 사흘간 14만7000여명(9.5%)이 관람해 4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 수는 24만1000여명에 달한다. 극장에서 좀처럼 주목받기 어려운 다큐 영화로는 이례적인 흥행이다.

이번 설 연휴 사흘간 전체 관객 수는 159만여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53만여명이 영화를 보러 극장을 찾은 셈이다.

지난해 설 연휴(1월 21~24일) 나흘간 전체 관객 수는 263만3000여명으로, 하루 평균 65만8000여명이 관람했다. 올해 설 연휴 관객 수가 지난해에 못 미친 것이다.

이는 이번 연휴를 노리고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극장가의 중심에서 흥행몰이를 할 만한 대작이 한 편도 없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의 경우 설 연휴 직전 개봉한 황정민·현빈 주연의 '교섭'이 연휴 나흘간 96만3000여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동시에 개봉한 설경구·이하나·박소담 주연의 '유령'도 연휴 기간 33만2000여명을 모았다.

대작으로 분류되는 두 작품과 달리 '도그데이즈', '데드맨', '소풍'은 제작비 규모가 100억원에 못 미치는 중소 규모 영화들이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보다는 집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으로 콘텐츠를 즐기는 트렌드가 자리 잡아가는 것도 설 연휴 관객 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쏟아지는 신곡 속 인생 노래 '차트 역주행'

'한페이지가...'·'아기상어' 등 성장기 '그 시절' 연상·중독성 멜로디 인기

최근 가요계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신곡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음악 팬들의 '픽'(Pick)을 받아 '차트 역주행'을 펼치는 노래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는 따뜻한 가사에 절주하는 느낌의 록 사운드가 버무려지면서 지난 4일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 일간 차트 43위까지 기록했다. 음악에 서사와 속도감까지 더해지면서 호평을 끌어냈다는 것이다.

걸그룹 비비지는 지난 11월 내놓은 네 번째 미니음반 타이틀곡 '마니아'(MANIAC)이 귀에 박히는 중독성

으로 뒤늦게 입소문을 타면서 새해 음원 차트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마니아'는 발매 첫 주에는 멜론 일간 차트 기준 579위까지 내려가는 등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활동이 끝나고 한참 뒤인 작년 말 크리스마스 이후 100위 이내로 들어오더니 지난 2~5일에는 4일 연속으로 19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3년 발매된 그룹 엑소의 '첫 눈'은 10년 뒤인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일간 차트 정상에 오르는 저력을 뽐내기도 했다.



'아기상어' 영어 버전 '베이비 샤크 댄스'

아기상어 영어 버전인 '베이비 샤크 댄스'(Baby Shark Dance) 영상은 반복되는 중독적인 가사와 멜로디에 힘입어 유튜브 조회수 140억건으로 전 세계 1위를 기록 중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무대는 내 거울"

다음달 서울서 콘서트

"음악은 늘 빈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얀 캔버스 백지 위에 새롭게 그림 준비가 돼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매일 훈련하는 겁니다."

'소리의 마녀' 가수 한영애(사진)는 최근 인터뷰에서 "무대는 과거, 현재, 미래를 비추주는 나의 거울"이라며 "음악은 '흘러간 노래'가 아니라 현재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음악을 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영애는 다음 달 17일 서울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1년 6개월 만의 단독 콘서트 '다시 봄(春)'을 앞두고 있다.

지난 1976년 포크 그룹 해바라기로 데뷔한 그는 1986년 솔로 1집 '여울목'을 냈고, 신촌블루스 객원 보컬로도 참여했다.

한영애는 그간 허스키한 목소리와 카리스마 있는 감성을 무기로 '여울목', '누구 없소', '코볼소', '조울' 같은 대표곡을 남겼다.

특히 그가 지난 1992년 '조울'에서 '마음이 사랑으로 분노는 용서로 / 고립은 위로로 충동이 인내로 / 모두 함께 손잡는다면' 하고 그곡이 토해낸 가사는 32년이 지난 지금도 깊은 울림을 안긴다. 세계 각지에서 여전히 전쟁, 기후 변화, 기아로 많은 이들이 신음하고 있어서다.

"사실 처음에는 7살짜리 아이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사랑의 의미를 알게 해주자'는 마음에서 환개 보호 느낌으로 가사를 썼어요. 30년 뒤에도 이 가사는 통용될 겁니다. 인간은 욕망덩어리니까요."

한영애는 "조울이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그래도 조금만 더 이해하려 하는 태도가 중요한 듯하다. 나 역시 죽을 때까지 가져갈 좌우명 가운데 하나가 겸손"이라고 짚었다.

다음 달 콘서트에 관해 묻자 "이제 불이니 모두 봄 버들가지처럼 흐드러졌으면 좋겠다"며 "겨우내 긴장했던 것들을 다 풀어버리자"고 했다.

한영애는 "음악인들에게는 늘 새로워야 하는 게 숙제"라고 진지하게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오전 7시에 일어나 운동과 산책을 하고, 오전 연습을 한 뒤 오후에는 콘서트 관련 준비를 하는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 미술관에 가거나 영화를 보는 등 문화생활을 하는 것도 연습의 일종이라고 했다. 특히 제때 밥을 챙겨 먹지는 못하지만 30년 넘게 유지 중이다.

한영애는 "가수도 바쁘다. 단추를 누른다고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며 "음악이라는 친구와 항상 같이 가는 우리는 평생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공연에서 '싱어게인 3'에서 '루실'을 불렀던 임지수를 비롯해 신예원, 이소정, 강태관, 범주 등 후배 가수들과 콜라보레이션(협업) 무대를 꾸민다. 이 가운데 범주는 요즘은 그룹 세븐틴의 프로듀서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과거 한영애의 백업 코러스를 한 뜻밖의 인연이 있다.

인터뷰 말미에 '소리의 마녀'라는 별명 혹은 허스키한 목소리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물었다.

"저는 그 별명이 마음에 듭니다. 빗자루에 난 마녀처럼 나쁜 녀석들에게 '이놈'하고 놀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소리의 마녀'라는 별명도, 허스키한 목소리도 다 제 것이기에 감싸고 사랑하고 있어요. 하하."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